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9년도 표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마8:7)

☉ 4대 실천강령 ☉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교회학교 여름 행사 내일부터 시작

'99 교회학교 여름행사가 대학부를 필두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주에는 유아부, 유치부, 대학부, 사랑부, 소망부가 계절학교를 연다.

대학부는 12일(월)부터 3박 4일간 태백에 있는 대구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수련회를 갖는다. 예배와 특강, 공동체 훈련과 조별 공부, 예

수원 방문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치부는 3일간 여름성경학교를 여는데 17일(토)과 19일(월)은 오후 3시까지 주일인 18일에는 오후 1시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유치부는 설교, 찬양, 만화, 연극 등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려는 데에 학습 목

표를 두고 있다.

이밖에 유아부는 17일(토) 일영 순례자의 집에서 교사수련회를 갖는다.

사랑부와 소망부도 17일(토) 교회당에서 각각 일일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개최한다.

각 부서 여름행사의 강사, 실시일, 장소 및 주제는 아래 표와 같다.

☐ 교회학교 여름행사 일정 ☐

부서	강사	실시일	장소	주제
유아부	이종윤 목사, 이영희 전도사	7월 17일(토)	순례자의 집(경기도 일영)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
유치부	이종윤 목사, 신미숙 전도사	7월 17일(토) - 19일(월)	교회당(유치부실)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유년부	이종윤 목사, 이상진 목사	7월 19일(월) ~ 20일(화)	교회당(유년부실)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리스도
초등부	이종윤 목사, 이성득 목사	7월 19일(월) ~ 20일(화)	교회당(초등부실)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
중등부	이종윤 목사, 정홍재 전도사	7월 21일(월) ~ 23일(수)	임마누엘수양관(경기도 광주)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는 그리스도
고등부	이종윤 목사, 박귀환 목사, 정대일 전도사	7월 26일(월) ~ 28일(수)	한울수양관(경기도 양평)	고치시는 그리스도
대학부	이종윤 목사, 박귀환 목사, 정운돈 목사	7월 12일(목) ~ 15일(토)	대구대 사회교육원(태백)	고치시는 그리스도
청년부	이종윤 목사, 고경선 목사, 임동진 목사, 이순환 목사	8월 2일(월) ~ 5일(목)	추양수양관(속초시 설악동)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
사랑부	이종윤 목사, 조대영 전도사	7월 17일(토)	교회당(사랑부실)	고치시는 예수님
소망부	이종윤 목사, 우심화 목사	7월 17일(토)	교회당(소망부실)	고치시는 그리스도

올 농어촌전도대 파송 교회 결정

충남 금산·강원 주문진 등 2곳 전도대는 청·장년층으로 정예화

전도위원회(위원장 최중시 장로)에서는 8월 9일(월)부터 12일(목)까지 전도대를 파송하여 지원할 농어촌 교회를 충남 금산 마장교회와 강원도 주문진 중앙교회 등 2개 교회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회는 전도대원 구성과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전도대 파송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올해 농어촌전도대가 파송되는 마장교회는 충남 금산군 남일면 마장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김명복 전도사가 사역을 하고 있는 농촌교회다. 이 지역은 마장 1, 2, 3리에서 174가구 420명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이중 주일학교 10명, 장년 20명이 마장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이 교회에서는 여름성경학교와 축호 전도, 노방 전도 지원, 주변 환경정리, 집 농기계 십자

가 종탑 전자제품 등 수리, 이발 미용 봉사, 안경 전기기술 등 지원을 원하고 있다.

또 중앙교회는 강원도 강릉 주문진읍 교향에 소재하고 있으며 김영석 목사가 시무하고 있다. 교인은 주일학교 30명, 장년 80명이며 인근 지역은 어촌인 주문 1, 2리와 농촌인 교향1, 2리에 320가구 650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교회는 노력동원과 여름성경학교 축호전도와 노방전도, 의료 등의 지원 등을 기다리고 있다.

교회는 이번 농어촌전도대도 작년처럼 정예화된 청·장년 20-30명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농어촌교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꾀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전도위원회에서는 농촌전도대 활동과 관련, 전도에 필요한 용품이나 의료·미용기구, 생필품 등도 모으고 있다.

'99 농촌전도대로 지원하실 성도나 물품 제출에 관한 문의는 사무국 혹은 전도위원회로 하면 된다.

UN형원 서명운동

만부장 3명 탄생 서명자 10만명 돌파

전국 최초로 우리 교회 박순봉·김선미·이수자 권사 등 세 분이 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탈북자 보호를 위한 서명운동의 만부장이 됐다. 서명본부에서는 오늘 찬양예배 시 만부장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 국내 교회 중 두 번째로 서명자 수 10만 명을 돌파했다. 이로써 우리 교회는 목표인 20만 명에 약 51%의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비전2020 기도운동사

군부대 후원 505구좌 매달 첫 주 후원 헌금

비전2020운동본부(위원장 홍정호 장로)에서는 군복음화를 위해 물질과 기도로 후원할 기도운동을 모집하고 있다. 이에 7월 4일 현재 100명의 성도가 505구좌를 신청해 왔다. 후원 헌금은 1구좌 월 3000원 이상(군인 1인당 세례 경비 3000원)으로 후원봉투를 활용하여 매달 첫번째 주일헌금시간에 하면 된다. <후원자 명단 4면>

이사야 강해

죄의 열매들

이사야 24장 17-25절

“그 위에 죄악이 중하므로”(20절). 이것은 민족적인 죄악을 말합니다. 백성들 위에 죄악이 중하게 떨어졌는데 죄를 지은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으며 죄를 지은 민족이 받아야 할 형벌과 그들이 먹어야 할 열매들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1. 죄는 사람을 허약하게 한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 하여 넘어지게 되면 영광 육과 주변의 모든 일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16절). 이것은 하나님의 화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물에 미치지 못하거나 빗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먼저 육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영혼이 흔들리게 되면 육신은 저절로 흔들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인격이 무너지게 됩니다.

또한 육신이 무너지게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망하는 사람을 보면 꼭 망할 짓만 골라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판단해서 한 일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이 약해지고 경제적인 곤란이 오며 마음이 약해지면 사람은 거의 비굴하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비겁해져서 오판을 하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의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죄를 지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2. 죄는 속이게 한다

죄는 속임수로 가득 차있습니다(16절). 죄가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서로 속고 속이므로 거기서 나오는 것은 불신뿐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매사가 부정적입니다. 이와 같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사단에게 붙잡혀 울무에 걸리게 되는데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이들은 함정에 빠진 자들입니다(17-18절).

결국 죄를 짓게 되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면 스스로 관음과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 앞에 함정을 파놓았고 뒤에는 울무를 쳐놓고 있습니다.

하나의 죄는 또 다른 죄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죄를 한 번 지은 사람은 죄를 피해서 도망간다고 하지만 결국 함정에 빠지게 되고 함정에서 올라오려고 하면 이번에는 마귀가 쳐놓은 울무에 걸리게 됩니다(18절).

죄는 인간을 죽이려고 합니다. 죄는 인간뿐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악을 추구하도록 해서 결국은 소망을 상실하게 하고 절망과 죽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5. 죄는 간히게 한다

감옥은 어둡고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죄는 우리를 감옥으로 끌고 가서 참자유를 상

“땅의 주민이 두려움과 함정과 울무가 네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울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 같이 흔들리며 그 위의 죄악이 중하므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사 24:17-23)



이중운 목사

또한 죄는 인간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갖지 않고는 세상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3. 죄는 혼란을 조성한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죄를 범하게 되면 불안해지고 흔들리며 모든 질서가 깨져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18-20절).

죄는 먼저 대인 관계를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부부와 형제와 가족이 무너지게 됩니다. 모든 관계가 비틀거리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를 보면 후회이고 앞에는 파멸이며 속에는 불안과 공포심이 가득 차게 됩니다.

4. 죄는 압박을 준다

죄는 영혼에 중압감을 주고 죄책은 과오에 대하여 압박감을 주어 영혼을 괴롭힙니다(20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마음에 압박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영혼의 활력을 빼앗아가며 모든 선한 일을 못하도록 하고 기쁨을 빼앗

실하게 하며 우리의 발에 착고를 채운 것보다 더 무서운 죄의 고리로 채워서 영원한 감옥에 가둡니다. 죄의 열매는 이와 같이 우리를 영원히 멸망하는 곳으로 떨어뜨립니다(21-22절).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16절). 죄를 이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사랑하고 거저된 죄에 대해서 환멸감을 갖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과 바른 의식과 건전한 소망을 주시고 무엇보다 지혜롭고 힘찬 새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적 자유와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요8:32, 갈2:4).

우리는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자유를 소유하게 되고 진정한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23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죄를 멀리 하는 사람은 주님의 지배를 받으며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수련회에 붙여●

만나고, 고침받고, 변화된 삶을 살고

이성득(목사, 교육위원회 지도)

태양의 열기처럼 교육의 열기 또한 뜨겁게 달아오르는 계절이 왔습니다. 서울교회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7월 12일부터 교회학교 각 부서별로 진행됩니다.

계절학교 기간은 교회학교 교육에서 평소 주일에 한정되어 아쉬웠던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고,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 영성을 강화하며, 교사와 학생 간에 긴밀한 관계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는 일찍부터 많은 기도와 구체적인 준비를 하면서 이 때를 기다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계절학교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 교회 교육목표대로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1999년도 교회학교 여름행사의 총 주제는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마8:7)입니다. 이번 여름 행사에 앞서 우리는 몇 가지 전체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고독과 단절, 불안 등 현대인의 병적인 구조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간 동안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 하던 자리에서 속히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겠습니까.

둘째, 이품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죄인된 인간(롬3:23)과 구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여름 행사에 참가하는 우

리 모두는 죄인된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치유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침 받은 자의 변화된 삶이 우리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삶을 산 것처럼 여름 행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행동과 언어와 사고가 각자가 선 바로 그 자리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은 총체적 위기에 빠져 곳곳에서 병들어 믿음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불안정하며 새로운 세기를 앞두고 격변하는 세계 속에서 많은 이들이 정신적으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죄로 말미암은 영적인 고통으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차체에 첨단 문명의 과학기술이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고도의 정보화와 기술이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주지 못합니다. 오직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회복을 주장하시며 우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실 수 있고 또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각 부서 여름행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며, 고침받은 자답게 변화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내 얼굴이 밝은 이유

탁경준(집사, 제 5교구)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느냐"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많은 사람들을 제 주변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고향 전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동창이 많은데다 사정상 한 해를 쉬었더니 2년 내리 선후배가 없는 동창이 되어 친구가 자연히 많아졌으며, 대학 졸업 후 ROTC 출신 수송장교로 근무하다보니 육로, 철도, 항만을 두루 알게 되었고, 월남전 참전으로 전우가 많고, 한 회사에 30년을 근무하다 보니 중간 연락을 담당하는 고정치가 되었습니다. 저의 일은 많은 거래선, 외주

처, 각국 바이어를 만나 설명하고 상담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30년을 줄곧 이와 같이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는 직업에 종사하다보니 누굴 만나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는데 5년 전 복음을 받고 확신을 갖게 된 후부터는 더욱 자연스럽게 담대한 용기가 솟구쳐 요즈음은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생활하는 가운데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을 느끼며 한량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대부분 교회의 장점보다 단점 지적하기를 좋아하며, 세상엔 문제 교회의 사건들을 떠들고 집착하는 무리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저는 모임이나 사람들을 만나는 곳에서 직접적으로 교회 나가자는 권유식의 방법보다는 제 자신의 간증을 통해 전도하는 방법을 씁니다. <4면에 계속>



서울교회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이기

이웅선(장로, 제 1교구)

무엇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자주 바뀌는 것이 통례이다. 예를 들어 같이 살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 인물, 가문, 학벌, 직업, 신앙 등 많은 선택기준을 제시한다. 그러다가 나이가 차고 가치관이 정립되고 신앙이 성숙해지면 오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직한 동반자를 만나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가정을 이루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게 된다.

내가 서울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많은 조건이 충족된 교회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또 하나의 교회도 아닌 다른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이다.

서울교회는 다른 하나의 교회답게 한국교회회개신연구원을 통한 목회자신학세미나와 김치신학세미나, 기독교교도소 설립, 북한 난민을 위한 UN청원 서명운동, 비전2020운동을 통한 군복음화와 민족 75%복음화운동, 농어촌 100교회운동 등을 통해 교회 재정의 60%를 밖으로 내보내고 있다.

무엇보다 이종윤 목사님의 복음주의적 말씀의 선포는 서울교회를 ‘다른’ 교회로 차별화시키고 있다. 진리의 말씀 선포가 흐려지고 세속화되어가고 있으나 서울교회 강단은 복음주의의 진수를 고수하면서 ‘오직 말씀’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다. 그래서 성도들은 약하고 음란한 세대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사랑·교회 사랑·이웃 사랑의 현주소가 변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욱이 99홍해작전을 통해 악에서 구원받기를 간구하는 가운데 신행일치의 균형잡힌 삶으로 사회적 책임도 감당하기를 원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으니 그 얼마나 감사한지.

새 예배당을 완공하여 헌당할 때가 되면 우리에게도 또 다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설레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 예배당 건축의 출발 시점에 있는 지금도 세계 선교의 산실이 될 비전을 보고 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기를 기도할 뿐이며 이와 같은 마음의 동참자가 계속 늘어나기를 소원해 본다.

<3면에서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그 나이에도 뿔머리카락도 없이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도 밝고 깨끗하냐"며 부러운듯 질문을 해옵니다. 그럴 때면 "예수님을 믿고 걱정, 근심, 불안, 공포가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젊음이 오는 것 같다"고 항상 답변을 합니다.

예수 믿고 저는 정죄함과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인간 이기에 가진 원죄, 내가 태어나지는 많은 죄 때문에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항상 불안에 떨었는데 성경이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롬8:1)고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해방되며 저주에서 벗어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택하셨고, 우

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시이며 우리 육신이 끝나면 날이 있으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3:16)고 약속하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후에 삶도 보장받기에 죽음의 공포는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나의 새 생활을 간증하고 나면 그 자리에 선 별 반응이 없던 사람들도 하루 이틀 지나 교회당에 같이 가겠다는 전화 연락을 해오고 그럴 때마다 저는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려한 방법을 둔한 제 입을 통해 사용하셔서 오늘도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탈북자를 위한 UN청원 서명운동 현황

▼ 팀별 서명수취인 수 (7월 4일 현재)

팀	서명수취인총수	주간서취인수	팀	서명수취인총수	주간서취인수
1교구	12,501명	(383명)	10교구	120명	(0명)
2교구	1,135명	(1080명)	11교구	12,400명	(4,380명)
3교구	833명	(630명)	12교구	400명	(150명)
4교구	3,037명	(600명)	초등부	30명	(0명)
5교구	11,940명	(8,460명)	중등부	1,000명	(270명)
6교구	1,576명	(0명)	고등부	506명	(300명)
7교구	1,630명	(293명)	대학·청년부	12,328명	(120명)
8교구	6,150명	(293명)	기 타	36,520명	(4774명)
9교구	300명	(90명)	총 계	102,406명	(23,070명)

▼ 서명수취 우수 개인 명단

- 10,000명 이상: 박순봉 권사, 김선미 권사, 이수자 권사
- 3,000명 이상: 홍성주 집사
- 2,000명 이상: 박이준 권사
- 1,000명 이상: 전기섭 장로, 이민화 권사, 최형열 집사, 김정란 집사, 권영옥 권사

서명운동본부에서는 제 2단계로 각 교구, 다락방, 선교회 및 전도회별로 노방전도 겸 서명운동을 펴고 있다. 7월 16일(금) 오후 8시 2층예배실에서 가질 운영위원회에서는 제 2단계 운동의 효과적 전개를 위해 각 교구 간사들로부터 주간서명운동 계획을 보고 받고 서명받침대, 어깨띠, 현수막 등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서명운동본부에서는 전국 중고등학교 교장이나 교감선생님과 친분이 있으신 성도를 찾고 있다. 관심있는 성도는 2층 서명본부나 주일 교회 정문앞 서명대의 운영위원에게 연락하면 된다.

비전2020운동 군부대 후원 기도온 봉사 명단

* 7월 4일 현재 ()안은 구좌 수

- 이경구(2) 이용자(3) 임희춘(3) 정종순(1) 김인순(1) 강혜신(0)
- 오규자(1) 김남옥(1) 이영희(2) 이영숙(3) 전용순(1) 전춘자(1)
- 나옥녀(1) 조정옥(1) 이점숙(1) 안순이(1) 이옥현(3) 이변생(3)
- 오광환(3) 김복순(3) 권순단(0) 곽 숙(1) 이남복(3) 이경희(5)
- 지성희(2) 고후덕(3) 오유식(3) 최용걸(3) 김상철(5) 이옥녀(7)
- 박명석(1) 전수자(3) 조선영(3) 양인수(5) 박영실(3) 최 읍(7)
- 김상옥(3) 정영옥(0) 조대영(3) 김영자(2) 최금자(5) 정호진(3)
- 김사무엘(3) 손성윤(3) 김윤자(1) 천기성(3) 박분옥(3) 김현주(1)
- 김재근(6) 홍한규(3) 박종민(3) 황노전(3) 조미환(3) 최재규(3)
- 박정섭(1) 이남성(3) 백정순(3) 한종우(3) 제오복(3) 최근자(1)
- 박순봉(1) 김정희(5) 노송성(0) 정병부(3) 이웅선(1) 권영옥(2)
- 심재을(1) 이은옥(5) 한정아(20) 김복녀(2) 송혜숙(1) 김은희(1)
- 박정수(3) 최종시(3) 김관홍(1) 조성식(7) 이순례(5) 이민화(1)
- 노인숙(3) 신정순(3) 심상필(3) 허상한(4) 박경희(2) 오정수(1)
- 박순옥(10) 함송현(1) 전기섭(10) 원영애(10) 장영순(3) 김영란(4)
- 신순우(100) 임옥균(1) 홍순복(3) 이종혁(3) 이관모(2) 최경애(1)
- 홍성례 제2권사회(33) 한나제2전도회(10) 100개 개인과 단체, 505구좌

■ 동정 ■

- * 이종윤 목사는 12일(월) - 14일(수) 기독교교도소 부지 모색 및 대학부수련회 강의차 강원도를 방문한다.
- * 김병호 집사·김현주 성도 가정(1교구 논현다락방)은 6월 22일(화) 덕녀했다.
- * 이번 주 식사는 김영주 집사·이해순 권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 베드로 제5·6선교회는 12일(월) 새예배당 건축 위한 기도회 및 현장방문을 한다.

■ 전화번호 변경 ■

- * 김효진·강동옥 성도(6교구 부천다락방 ☎ 3666-0022로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심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학교의 여름행사를 위해
2. 비전2020운동을 위해
3. 탈북난민을 위한 UN청원서명운동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